불교식 다이어트 · 서적 · 상품 해외서 '열풍'

마케팅 효과 뛰어나… 런던불교센터 싱하마나 씨 "브렉시트 · 트럼프 당선으로 불안한 미래, 불교가 달랠 것"


트렌디한 술집으로 유명한 '붓다 바(Buddha's Bar)'는 체인점 15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곧 20주년을 맞이한다. 사진출처=the guardian

불교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마케팅이 넘치는 세상이다.

해외에서는 새해 다이어트 요법으로 붓다식 다이어트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도서 〈붓다의 다이어트(원제 Buddha's Diet)〉가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푸드트럭 음식으로 입소문이 난 '붓다의 발우(Buddha's bowls)'는 영국 소매업체 기업인 '막스 앤 스펜서'에 입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술집으로 유명한 '붓다 바(Buddha's Bar)'는 체인점 15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곧 20주년을 맞이한다.

이처럼 불교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런던불교센터의 소임을 맡고 있는 싱하마나 씨는 불교적 콘텐츠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불교를 컨셉으로 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며 "불교는 신비로우면서도 성스럽지만 종교적인 느낌을 주지 않게 사람들에게 평화, 에너지, 편안함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불교적 콘텐츠의 활용은 마음챙김에서 시작됐다. 마음챙김은 명상적 기법 중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됐다.

싱하마나 씨는 "'영리한 PR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알아채고 경제활동에 불교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브랜딩과 마케팅에서 불교적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매력적인 것으로 변신한다"고 말했다.

〈붓다의 다이어트〉의 공동저자 댄 지그몬드는 스님이다. 간헐적 단식은 불교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수행 중 하나다. 지그몬드 스님은 "부처의 가르침인 중도(中道)가 다이어트에서 적절한 설득력을 심어준다.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적

책 〈붓다의 다이어트〉, '붓다 바' 등 불교 관련 콘텐츠, 평화 이미지 연상
"마케팅에 '불교' 사용하는 순간 매력적인 것으로 변신할 수 있어"

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천천히 식사하되 대신 늦게 먹지 않는 것이 중도의 원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불교도들은 오래전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그몬드 스님은 "실제 부처님은 날씬했다. '붓다의 발우'는 명상적으로 먹는 방법에서 비롯됐으며, 발우의 모양도 부처님의 머리모양을 본 따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자들은 관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이 싱하마나 씨도 많은 업체들이 불교를 소재로 브랜딩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싱하마나 씨는 "불자들은 불교를 소재로 콘텐츠화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반응 없이 느긋한 것 같다. 지금까지 한번도 '막스 앤 스펜서'에 붓다의 발우가 입점한다는 사실로 불자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붓다 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싱하마나씨는 "'붓다 바'의 공간도 불교 사원의 콘셉트와는 매우 거리가 멀고 음악도 거리가 먼 것들"이라며 "자카르타 지점에서는 종교를 폄훼한다고 비춰져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두바이점에서는 불상이 우상숭배로 비춰져 많은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윤리적이지 않다. 불교는 의식의 명료함과 알아차림을 장려하는 종교다. 알코올 산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가 상업적으로든 비상업적으로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제임스 셰헌 트라이사이클 편집장은 "만일 당신이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팔려고 할 때 정신적 충만과 평화 등을 약속하는 것들로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싱하마나 씨는 이런 불교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에 대해 "브렉시트 영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래의 암울함으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불교가 주는 평온함, 절제를 통해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스리랑카, 베삭의 날 UN 공휴일 지정 '촉구'

니말 보파지 의원, 1월 8일 국제불교도세미나에 제안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제불교도세미나에 베삭의 날을 UN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길 제안했다. 사진출처=zimbio

스리랑카가 불교도들의 축제인 '베삭의 날'을 UN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길 제안했다.

영국 조간신문 'dailymirror'는 1월 8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의회개혁 및 미디어 부처장 니말 보파지의 발표를 인용,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제불교도세미나에 베삭의 날을 UN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더불어 2017년 UN 베삭의 날 기념식을 스리랑카서 치르길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dailymirror'에 따르면 부처님 탄생 · 깨달음 · 죽음을 기념하는 베삭의 날은 1999년 'UN 공식 축하의 날'로 정해졌다. 당시 유엔 총회 의원 193명은 락쉬만 카디르가마르 前 유엔 외무부장관이 베삭의 날 기념을 관장토록 지정했으며, 규약에 따라 UN 공휴일이 아닌 경우 직원들은 보충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니말 보파지 의원은 "5월 12~14일 UN 베삭의 날 축제가 열리면 전 세계 1,000여 명이 넘는 불자 대표단이 스리랑카 중부 도시 칸디의 말와테 · 아스기리야 대승원을 방문한다"며 "불교도인 UN 직원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베삭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UN은 직원들의 종교선택 자유를 존중, 지난해 1월 총회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공식 공휴일 9개와 임시 공휴일 7개를 선정했다.

임시 공휴일은 불교 베삭의 날(5월 10일)을 비롯해 정교회 성 금요일(1월 6일), 유대교 속죄일(9월 29일), 힌두교 디왈리(10월 19일) 등 6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엔 직원들은 상관에 미리 보고한단 전제하에 지정된 임시 공휴일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동성결혼 불자 "佛性은 성적 정체성 존중"

1월 9일 채의흠 씨 결혼식서 달라이라마 인용


1월 9일 동성결혼식을 올린 채의흠 · 요요 부부. 동성애 불자로 당당한 삶을 산 채의흠 씨(오른쪽)는 이웃종교인 요요 씨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TAIPEI TIMES

대만 한 교회서 동성 결혼식이 열린 가운데, 부부 중 1명이 불자로서 동성과 결혼을 한 것이 "전혀 거리낄 것 없다"고 발언해 화제다.

대만 영자지 'TAIPEI TIMES'는 1월 9일(현지시간) 타이완시 동광라이트 장로교회서 동성결혼식을 올린 채의흠 · 요요 부부와 각자의 종교가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불자인 채 씨는 불교가 성적 소수자로 사는 것이 '떳떳하다'며, 과거 인도서 달라이라마와 해후한 경험을 털어놨다.

"당시 인도 다름살라서 열린 인권회의에 참석해 달라이라마에게 성적 소수자도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불자가 동성애자인 경우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매우 궁금했습니다."

채 씨는 "달라이라마는 부처가 되는 것과 성적 지향성은 아무 상관없으며, 오직 끈기를 가지고 불성을 추구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음을 설명해줬다"며 "이후 불자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지니게 됐다. 전 세계 불교 성지 순례도 다녀오는 등 불교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웃종교 신자인 요요 씨의 경험은 조금 달랐다.

요요 씨는 "목사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평생 기독교리를 배웠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교육을 받았다"며 "유년시절 가족과 사이는 좋았지만 다른 많은 동성애 성향의 기독교인들처럼 가족들로부터 성적 정체성에 대해 존중받고 응원받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친구가 없었고, 자라는 동안 자신이 '정상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위로하곤 했다"고 고백했다.

채 씨는 성적 소수자에 배타적인 이웃종교 성향에 대해 "배우자의 종교를 존중한다. 요요의 가족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회엔 사일러스 왕 목사와 카르마 게르메 린포체 티베트 승려가 참석해 결혼식 주례를 봤다.

이승희 기자

"'봄, 여름 그리고 봄' 한국 불교영화 최고"

美영화 평론가 한국 불교 영화 호평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장면 중 일부.

미국 한 영화관서 새해를 맞아 불교 영화 4편을 시리즈로 상영하는 가운데, 한국영화 2편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선정된 영화는 바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버드맨' △ 해롤드 래미스의 '사랑의 블랙홀'이다.

미국 덴버에 위치한 '씨 필름 센터(Sie Film center)'는 새해맞이 불교 영화 상영 계획을 소개하며 영화평론가이자 일리프(Iliff) 신학교 부총장 '제프리 메이헌'의 영화 감상평을 소개했다. 그 중 한국영화 2편에 대한 감상평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제프리 메이헌: 나는 이 영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만족스럽게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하며 불교 사상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동자승이 커가면서 겪는 일을 순환식의 인생으로 빗대어 전개되는 점이 매우 좋았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제프리 메이헌: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불교 영화일 것이다. 상당히 도전적으로 만든 작품같다. '봄, 여름, 가을…' 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생과 사, 선과 악, 행과 고라는 우리 존재의 체험이 주어지고, 생은 공하며 태어나는 것도 사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가르침을 영화로 표현해 냈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보형 객원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